순천만·금호호·영암호 고위험 철새도래지

농림부, 과거 AI 발생 상황·가금 사육 밀집도 등 분석 후 분류

전남도 방역 비상…주암댐·고천암·강진만 등 전남 12곳 중위험

순천만·금호호·영암호가 고위험 철새도래지로 분류되면서 전남 방역 당국도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전국 최대 오리 산지에 닭 사육 농가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지역인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분류한 고·중위험 철새도래지가 전남에만 15곳에 이르면서 자칫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전남을 비롯한 전국 철새도래지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과거 AI 발생 상황, 야생조류 검출 현황, 가금 사육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남 순천만·금호호·영암호 등 3곳을 포함한 전국 20곳을 고위험 철새도래지로 분류했다.

고위험 철새도래지에는 기존 방역 관리에 더해 군 제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배치해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했고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감안, 축사 지붕까지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가금류 농가 진출입로에는 생석회를 뿌리도록 했다.

농림부가 분류한 중위험 철새도래지에도 전남지역 12곳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암댐·산수저수지·영산강·고막원천·대동저수지·고천암·사내간척지·만덕간척지·강진만·우습제·지석천·황룡강 등으로, 농림부는 이들 지역애 대해서도 주변도로와 농가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소독을 매일 실시토록 했다.

전남지역은 영암·나주·강진 등에서 270개 농가가 500만마리의 오리를 사육, 전국 사육량(1022만 마리)의 49%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데다, 닭도 383개 농가에서 2578만마리를 사육,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이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중위험 철새도래지가 다수 포함되고 철새 도래기에 맞춰 이동경로에 위치한 중국·러시아·대만 등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야생조류·가금 농장 예찰 강화 ▲지역 및 농가별 방역담당제 추진 ▲오리농가 농장 방역 초소 ▲전통시장 방역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도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 활동 강화 뿐 아니라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그물망·울타리 등 필수 방역시설을 정비하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예찰검사를 진행중으로 지금까지 철새에서 H5형 AI 항원 6건이 검출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 철새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61만1000마리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철새가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위험시기인 만큼 유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월출산 국화축제 '꽃마차 퍼레이드' 29일 전남 영암군 기찬랜드일원에서 열린 월출산 국화축제 개장식에서 '국화 꽃마차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국화축제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스마트공장 1300개 늘린다

장성서 기업인 소통 간담회

2022년까지 2500억 투입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13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을 상대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전남도는 29일 장성 나노산단에 위치한 에이비메디컬(주)에서 스마트공장 기업인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 기업인들은 에이비메디컬(주)가 2018년 진공채혈관 제조 공정에 도입한 공장운영시스템(MES), 스마트센싱 등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참관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성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균 (주)에이비메디컬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 후 업무 질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 오히려 직원 수가 늘었다"며 "앞으로 제품 출하 공정 및 품질관리 부문으로까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주)에이비메디컬은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생산성은 30.3% 오르고, 불량률은 43.5% 낮아졌으며, 원가도 15.9% 하락했다. 일자리는 3명이 늘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T 기술로 통합, 최소 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어촌 예비 귀어인들 "일자리 얻기까지 적응 시설 필요"

전남도·어촌특화센터 조사

귀어할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이 정이 있고, 개방적이며, 어족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전남 어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남 각 어촌에 가족들과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얻기까지 장기간 머물며 적응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여수 화태, 영광 구수·대신, 함평 석두어촌계에서 전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가 주최한 '전남 어촌 탐구생활'에 참가한 도시민 귀어 희망자는 모두 29명이다. 이들은 지난 8월 귀어 스몰엑스포, 9월 전남 귀어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전남 어촌에 귀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신지는 서울 10명, 경기 5명을 포함해 광주, 대전, 강원, 전북, 대구 등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수 화태어촌계에서 13명, 영광 구수·대신 어촌계에서 8명, 함평 석두어촌계에서 8명이 머물면서 실제 어촌 생활을 경험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이들을 상대로 전남 귀어 이유, 귀어 시 필요한 지원, 귀어 후 희망 직업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영광 구수마을에 귀어할 예정인 강대희(57)씨는 "대전에서 아내, 아들 등과 다양한 양식장이 있고 따뜻한 전남에 정착하기로 했다"며 "어선구입 자금 지원과 어촌에서 좀 머물면서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함평 석두마을에서 3박4일을 보낸 이왕일(44)씨는 "부모님, 부인 등 4명이 전남 어촌에 귀어해 오순도순 사는 꿈을 꾸고 있다"며 "어촌계원 가입 전까지 1년 정도 어촌에서 머물 수 있는 일자리가 가장 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수 화태를 귀어지로 고민하고 있는 서울 출신 김관섭(58)씨는 부인과 함께 귀어해 통발업을 할 예정이다.

이들 예비 귀어인들은 어촌계의 마을회관이나 어촌계장이 추천한 주택에 머물면서 맨손어업, 어선어업, 양식업 등 다양한 어업활동을 체험했다. 또 어민들과 어울리면서 어민으로 살아가는데 겪었던 고충이나 어려움, 향후 어촌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전남 어촌을 이해하는 기회도 가졌다.

전남도 등이 마련한 '전남 어촌 탐구생활' 프로그램에 참석한 도시민 귀어 예비인들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영광 구수어촌계에서 고기잡이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단기 어촌 정착 프로그램인 '전남 어촌 탐구생활'이 끝나면 어촌 정착 바로 전 단계인 장기 어촌 정착 프로그램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는 귀어를 위한 빈집 찾기, 일자리 알아보기 등 실제 정착이 가능하도록 한 달 동안 귀어 희망 어촌에 머물며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종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 어촌에 귀어할 도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어촌뉴딜 300 사업 등 다양한 기반시설사업을 통해 각 어촌에 임시거주시설을 만들 예정"이라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과 합의해 어촌 일자리 마련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민참여 플랫폼 '소통인 전남' 운영

전남도가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소통인(人) 전남'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29일 "날로 발전해 가는 디지털 기술의 개방성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전남도정을 구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전남도 누리집에서 접속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 하나로 소통인 전남(sotongin.jeonnam.go.kr)에 바로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제안과 청원을 할 수 있다. 단순한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을 건의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소통인 전남은 기존 도민청원제와 통합, 크게 '제안광장'과 '청원광장'으로 나눠 운영된다. 정책제안의 경우 제안 ▶공감 ▶토론 ▶심의 ▶실행, 청원의 경우 청원 ▶청원 지지 ▶답변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정책제안은 도민이 제안한 후 30일 동안 공감 수 100명을 얻어 토론 단계로 넘어가며, 토론에 참여한 도민 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되면 10일이나 도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함께 검토·논의해 최종적으로 '실행' 의견이 모아지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주거복지 서비스 업무 일원화해야

광주시 '주거복지 포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29일 전남대학교 용지관에서 '2019 광주 주거복지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주거복지 전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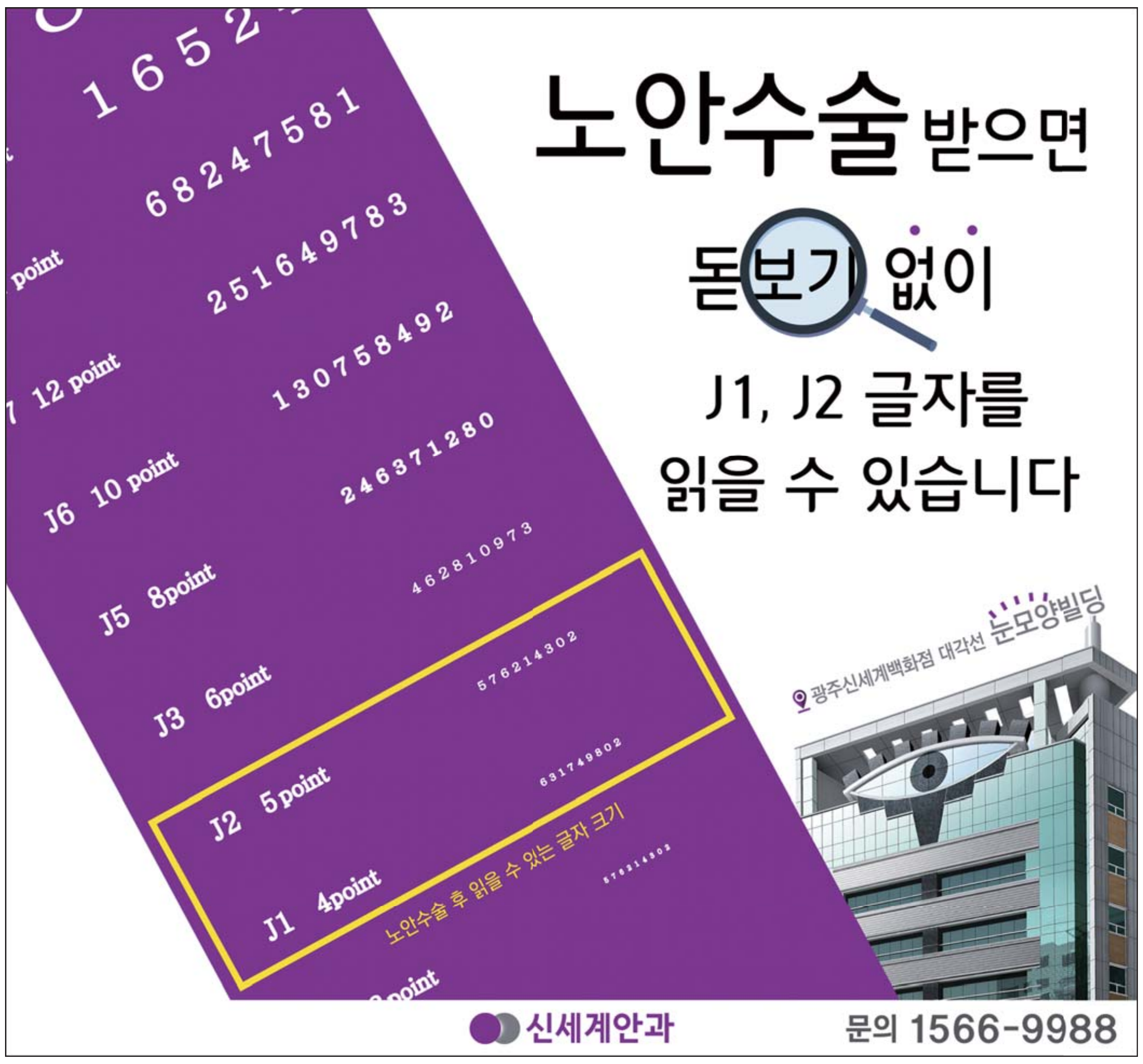
이번 포럼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서비스 요구도가 높고 현행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정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주거 부분의 전문성과 주거욕구 해결에 대한 적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다른 시·도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실무자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포럼은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거복지 전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을,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이 '지역기반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와 제안'을 발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7년 11월 '광주광역시 주거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해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19년 주거복지센터의 전국 시범사업을 통한 모범사례로 확산될 예정이다.

광주주거복지포럼은 올해 처음 광주시와 시의회, 광주도시공사, 전남대 생활교육연구소, 전국개발공사 주거복지협의회가 함께 공동 개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